

설립 연도 2020년 11월
주요 사업 제품 제조 판매
성과 2019년 전남대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2019년 전남대학교 CNU-STARTUP 우승, 2020년 전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창업동아리 선정, 2020년 광주테크노파크 예비청년창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 광주광역시 북구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 선정



07

오수경 모이지 대표 (아이디어팩토리)

링거스트롤, 발열 체크기... 창의적 아이템 꾸준히 만들어가는 모이지

모이지는 '모든 변화에 모두가 적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오수경(23) 대표가 지난해 11월 만든 스타트업이다. 오 대표는 "모이지는 창의적인 생각이 반영된 믿음직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모이지가 만든 첫 번째 아이템은 '링거스트롤'이다. 아동병원 혹은 아동들이 입원하는 병원에 가보면 보호자가 아이들을 태운 유모차와 링거거치대를 함께 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유모차에서 내린다고 하면 보호자는 아이도 케어하고, 유모차와 링거 거치대를 둘 다 끌어야 한다. 링거스트롤은 유모차에 링거플대를 연결해 유모차만 가지고 다녀도 링거투여가 가능한 제품이다.

모이지가 만든 두 번째 아이템은 '캐치피버'다. 캐치피버는 손목밴드 형태로 근접무선통신(NFC) 칩이 탑재된 발열 체크기다. 별도의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NFC 기능을 통해 휴대폰으로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캐치피버는 신체에 부착해 온도를 측정한다. 기존 발열 체크기보다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오 대표는 "타 제품군 대비 50% 정도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다"며 "캐치피버는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 개인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캐치피버를 초·중·고등학교 또는 군대 등과 같은 집단 관리시설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하루 4번 학생들의 발열을 체크한다. 많은 학생의 온도를 체크하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운데 캐치피버를 활용하면 손쉽게 온도 체크가 가능하다."

현재 캐치피버는 개발 마무리 단계로 8~9월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다. 판매는 학교 등의 단체를 통해 이뤄지며 개인 소비자를 위한 클라우드 펀딩도 준비 중이다.

고등학교 시절 발명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오 대표는 평소 물건을 만들고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다. "진로적성검사와 MBTI 성격유형검사 등을 통해 개척하고 진취적인 것을 했을 때 더 좋은 성과와 행복을 느낀다는 걸 과를 얻었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했다."

창업 결심 후 오 대표는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했다. 오 대표는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창업에 몰두했다. 직접 유튜브를 보거나 멘토들을 찾아다니면서 창업 공부를 했다. 그 결과 모이지는 2019년 전남대 CNU-STARTUP 우승, 전남대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전남대 링크플러스 창업동아리 선정, 2020년 광주테크노파크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지원사업, 광주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잇따라 선정됐다.

오 대표는 "창업은 주어진 형식이 없이 새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을 때 주변 많은 친구와 다른 길을 왔지만 '나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느낄 때 보람을 느낀다"고 웃음 지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오 대표는 "캐치피버가 성공적으로 많은 곳에서 사용 되는 것"이라며 "매출 증가가 잘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미션처럼 모든 변화에 모두가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꾸준히 제작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11**